

## 45

##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사무엘상 18:1 ~ 5, 19 ~ 20장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겹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마다 항상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다윗을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미리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이 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사무엘상 18:3)



45

그러나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라마 나뭇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얼마 후 요나단을 만나러 돌아온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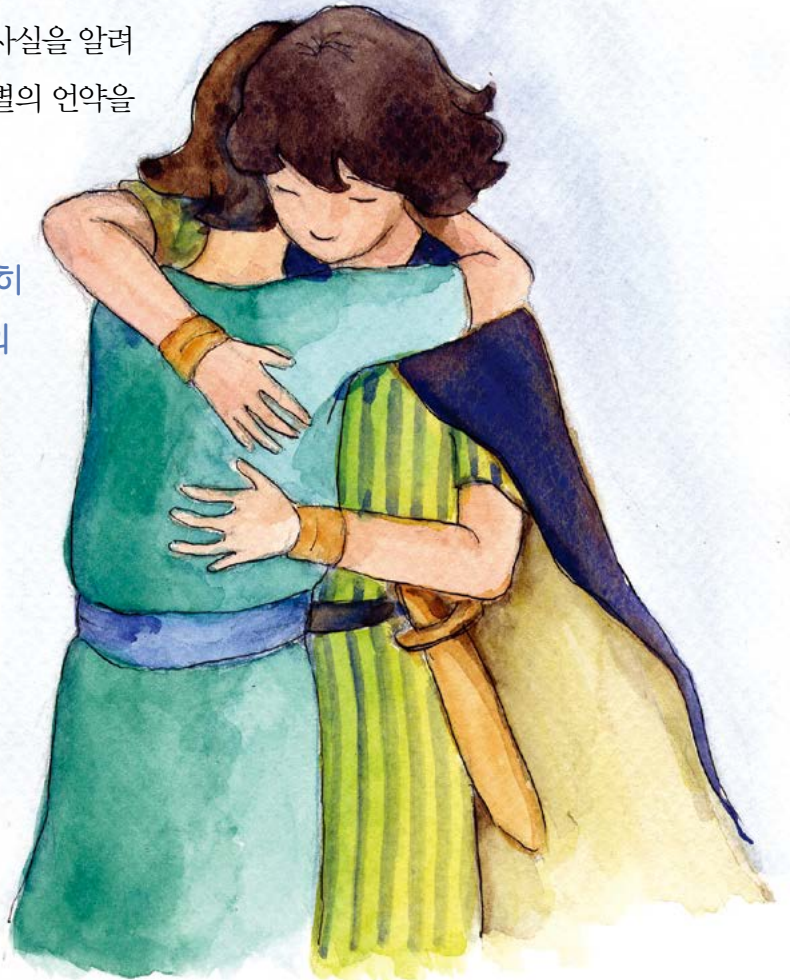
"요나단! 왕께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나요?  
내가 왕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해 주시요."

요나단은 괴로워하는 다윗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마음을 알아본 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둘은 서로 슬퍼하고 울면서 작별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잘 가라,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함께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다."



# 오늘의 공부

## 요나단의 사랑

1.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대답해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처음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 골라 보세요.  
(        )

- ① 멋있어서
- ② 힘이 세서
- ③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 ④ 물맷들을 잘 던져서
- 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2.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만큼 사랑하였나요?

-----

3. 시울 왕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요?

-----

4.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한 일을 써 보세요.

-----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이 없나니  
(요한복음 15:13)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 구원받은 친구들과의 사랑

다음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구원받은 민기에게는 교회에서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정운이, 준석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민기는 교회에서 그 두 친구와 항상 같이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민기는 두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정말 자신을 생각해 주는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기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준석이는 민기가 용기를 내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민기에게 편지도 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운이는 교회의 다른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기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처럼 진실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나요?  
생각해 보고 그 친구의 이름을 적어 봅시다.

그리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친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 예 화

## 진짜 친구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함께 산으로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김밥도, 간식도, 물도 챙겨서 좋은 경치를 감상하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앞에 산에 사는 커다란 곰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정신이 팔려서 곰이 다가오는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때, 한 친구가 혼자서 재빨리 옆에 있던 나무에 기어 올라가 숨었습니다.  
 밑에 혼자 남게 된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가 숨을 멈추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커다란 곰은 다가와서 누워 있는 친구에게 바짝 다가와 뭐라고 속삭이고는 그냥 가 버렸습니다. 나무 위에 숨어 있던 친구는 얼른 내려와 땅에 엎드려 있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곰이 자네에게 뭐라고 속삭이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  
 그러자 땅에 엎드려 있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곰이 자네 같은 사람과는 친구하지 말라고 하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p><b>부모님</b> 난</p>	<p><b>선생님</b> 난</p>
-------------------------	-------------------------